



혁신 Newspaper



발행처 : 항공교통센터 / (우) 400-650 인천 중구 운서 인천공항우체국 사-26호 / 전화 032-880-0224 / 전송 032-889-2376 / <http://acc.moct.go.kr>



혁신탐사

행자부, 성과관리시스템 대폭 개편

- 직원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하여 -

행 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성과관리제도 도입 3년차를 맞이하여 직원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정성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①온라인 정성평가시스템 도입, ②성과평가위원 구성 변경, ③직무성과계약시스템 구축 등으로 온라인 정성평가시스템은 정부부처중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성과평가방식으로 추진실적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목표들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번 성과관리시스템 개편은 박명재 행자부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성과와 경쟁원리에 의한 인사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 직원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그간 7차례 걸친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장·차관, 간부들의 회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행자부는 이번 성과관리시스템 개편으로 행자부 성과관리의 객관성·공정성이 크게 제고되고, 직원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100%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다른 정부기관들에 성과관리 사례를 적극 전파하여 성과중심의 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항공소식

항공기사고 처리, NSC 매뉴얼 위력 빛났다

- 제주공항 사고로 본 위기관리...
상황발생 2분만에 현장지휘소 설치-

참 여정부 출범 이후 체계하기 시작한 국가 위기관리가 빠르게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위기관리 개념도 과거 군사 차원의 ‘전통적 안보’에서 정전, 사이버테러, 식중독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협으로부터의 국민보호라는 ‘포괄적 안보’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국정브리핑>에 게재된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태세를 소개하고 상시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 11월 28일 오후 4시 15분 승객 69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한성항공 205편(기종 ATR-72)이 제주공항에 착륙을 위하여 활주로에 바퀴를 내린 순간 갑자기 항공기 동체에서 불꽃이 튀면서 동체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관제탑에서 비상 상황이 전파되자, 소방차와 구급차가 곧장 사고 항공기에 접근했다. 제주항공 관리사무소 현장대책반도 출동했다.



▶ 소방차 출동장면
사고 발생 후 불과 2분 만에 사고현장에 초동조치 현장지휘소 설치가 완료됐다.

현장대책반은 항공기와 승객의 피해상태를 파악하고, 병원에 비상연락을 취했다. 다행히 항공기에는 화재 등 추가적인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10분만인 4시 25분경 공항 측은 부상자 후송을 마치고, 승객들을 버스 2대를 이용해 이동시키는 조치를 마무리했다.

오후 4시 58분경 크레인 2대와, 트레일러 1대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5시 30분부터 청소차 1대와 작업인원 50명이 동원돼 활주로 사고항공기 파편수거작업이 진행됐다.

오후 5시 40분 항공기 동체가 닿으면서 파손된 깊이 5cm, 폭 15cm, 길이 50cm 정도의 흔적이 남았다. 오후 6시 50분 활주로 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작업이 완료됐다.

오후 7시 5분 사고항공기가 활주로 밖으로 옮겨지자, 현장대책반은 활주로에 이물질이 없는지 'FO점검' (foreign objects)을 실시하고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관리사무소, 공항상주기관이 합동으로 전체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어 7시 22분 활주로 등화시설 점검 등 활주로 개방을 위한 최종 확인점검을 완료하고, 3분 뒤 활주로 정상운용에 들어간다는 항공고시보를 발송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3시간 10분 만에 현장상황이 종료된 것이다.

현장매뉴얼에 의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사후처리를 마무리했음에도 이처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항공기사고는 단순히 출발지연 등의 피해뿐 아니라 국제적 이미지의 실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이 중요시된다. 이와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관련 국제기구로 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경우 국제항공계에서 받는 불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류희인 사무차장은 제주공항 사고 당시 신속한 위기관리에 대해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가 2005년 6월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수립하면서 항공기 사고

발생시 대응태세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건설교통부 정상호 항공안전본부장은 "위기관리도 시대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제반 규정과 절차를 검토·보완하고, 실행연습을 실시해 유사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 절차를 매뉴얼로 정리하고 관련기관들의 평소 대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수립된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완벽한 사고 대응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제1회 공항안전세미나 개최

항 공안전본부는 정부차원의 공항분야 교류·협력 증진등을 위하여 지난 4월 12일 김포공항내 스카이스티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공항안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항공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학계, 연구기관, 업체 등 약 35개 기관 300여명의 항공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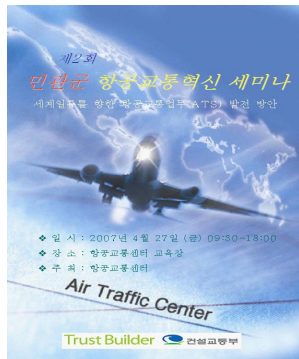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항안전 및 공항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주제로 11명이 발표하였으며, 공항안전을 주제로 정부가 주최한 첫 번째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내용과 높은 청중호응도로 보아 성공적인 세미나 개최로 평가되었다.

이번 공항안전세미나 개최로 공항분야의 교류·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 발표내용 중 건설적·합리적인 제안사항은 정책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08년 ICAO 평가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 관련 자료는 편집하여 건교 미디어 및 CTNET 등에 홍보할 예정이며, 추후 '08년도 제2회 세미나부터는 ICAO 및 FAA 등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제2회 『민·관·군 항공교통 혁신세미나』 개최

항공교통센터에서는 항공교통업무(ATS) 분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유관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항공교통센터에서 제2회 『민·관·군 항공교통 혁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행사 포스터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항공안전본부 신동춘 항공교통안전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항공교통량의 증가(연평균 6~9% 증가)로 인한 항공교통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항공교통업무 특성상 유관기관간 협조체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항공안전본부는 항공안전협의회 기구를 5월중에 출범하고 항공안전기획파트 등을 신설하는 등 항공교통업무분야를 구조 개혁하여 사전적/예방적인 차원으로 구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축사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성수 경영기획실장이 2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 1위를 달성한 인천공항의 혁신성공사례를 발표하여 변화와 혁신 시대에 민간기업의 혁신성공사례를 통하여 항공교통분야의 혁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항공사) 및 내부(직원) 고객의 소리를 통해 고객중심의 세계일류 항공교통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양 공항공사 및 항공기상관리본부간 분야별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구축방안이 모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장 이흥교수의 혁신리더쉽 강화를 위한 “왜 혁신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혁신교육을 청취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항공교통업무는 Service Provider로서 고객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계 일류 항공교통업무(ATS)가 되어야 할 것임을 다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혁신으로 가는길

기업의 미래, 혁신에서 찾는다 !

BM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는 지난 '04년 전세계 456명의 CEO들을 대상으로 향후 2~3년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 화두를 조사했다. 대부분의 글로벌 CEO들은



‘성장(Growth)’을 화두로 꼽았다. 2006년 IBM은 전 세계 765명의 CEO들을 대상으로 다시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는 ‘혁신(Innovation)’이 글로벌 CEO들의 핵심 아젠다로 선정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최근 기업경영의 최대 화두가 성장과 혁신임을 보여주며, 실제로 대다수 기업들이 ‘혁신을 통한 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반증한다.

저자들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혁신에 대한 개념 및 모델뿐 아니라, 국내선도 기업들의 다양한 경영혁신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또한 선진 외국기업들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한 국내 기업들의 혁신 기법들도 심층 분석한다.

혁신을 통한 성장은 ‘기업의 지속성(Sustainability)’이라는 경영자의 또 다른 과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혁신을 통한 성장은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더불어 IBM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가 2004년부터 언론사와 함께 추진해 온 ‘존경받는 기업’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도 소개한다.

성공하는 기업은 혁신 리더가 만든다!

이 책은 그 동안 진행해 온 광범위한 분야의 컨설팅 및 경영진 면담, 교육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씌어졌다. 경영진뿐 아니라 중간관리자들은 매일매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심사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이론서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저자들은 경영 일상에 매우 바쁜 경영진과 실무진이 손쉽게 받아들이도록 핵심 개념과 IBM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가 과거 10여 년간 수행해 온 실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혁신수행 방법론 및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Part 1에서는 CEO들의 화두인 ‘성장과 혁신’이라는 주제를 사회적,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혁신의 의미 및 사회적인 영향과 이 책의 주요 관심사인 경영혁신의 의미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BM이 실시한 글로벌 CEO 스터디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장과 혁신에 대한 CEO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조직 혁신을 위한 시사점도 제시한다.

Part 2에서는 경영혁신의 의미와 세 가지 유형,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제품 혁신’ ‘프로세스 혁신’ ‘비즈니스모델 혁신’ 등 다양한 경영혁신의 특징을 개괄하고, 비즈니스모델 혁신의 중심축인 ‘전문화 기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또 프로세스 혁신의 방법론과 성공요인을 짚어본다.

Part 3에서는 IBM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가 수행한 국내 대표기업들의 프로세스 혁신 사례들을 살펴본다. 포스코 GS칼텍스 한국타이어 STX조선

삼성SDI 다음커뮤니케이션 태평양 기업은행 등 각 분야에서 혁신 리더로 평가받는 회사들의 경영혁신 과정들이 상세히 소개된다.

Part 4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 알아본다. ‘대한민국 30대 존경받는 기업’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성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들의 부문별 특징을 짚어본다. 평가 체계 및 조사 분석 방법이 소개되며 평가결과 및 시사점도 제시된다.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있었다. 오늘날 그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기존의 발상과 방법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힘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이 같은 혁신의 시기에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출처 : 행정자치부 혁신의 불씨(제80호)



독자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항공교통센터에서는 혁신분위기 확산, 혁신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창의적인 혁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혁신 NEWS PAPER』를 발간·배포하고 있사오니, 각 기관 또는 개인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활동을 게재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혁신NEWS PAPER 발간 및 배포안내

- 발 간 : 주 1회(매주 화요일)
- 배 포 : CTNET, 우리센터 게시판, 구독자 전자우편 등
- 편집부 : 항공교통센터 공역과 (편집장 : 장재수)
- 전 화 : 032-880-0224 팩스 : 032-889-2376 E-mail : atcchang@moct.go.kr

※ 본 지의 내용은 우리 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닐 수 있습니다